

모 두 말 씀

2017. 2. 21. (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이창양 KAIST 교수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책금융협의회의 기관장님들과

관계부처 참석자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신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신성장위원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II.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경제·금융의 변화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포괄적 융합, 네트워크화, 지능화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경제·사회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 소비, 노동 등 전 분야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IT, 에너지, 바이오 등 '기술간 융합'을 통해 한계비용이 제로에 근접하는 디지털 경제, 인터넷 플랫폼 등을 이용한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 현상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등으로 개인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수요주도적(on-demand)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기업이 수요시장으로 다시 이동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도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시장도 단순·반복 직군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산업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 상시화 등으로 사회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미 금융시장은 IT와 융합 즉, Fin-tech를 통해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고객들이 원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을 관리하고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통화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금융산업 고유 영역도 모호해 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Ⅲ.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흐름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산업혁명에는 뒤졌지만, ICT혁명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한다면 변화를 이끌어 갈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유망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먼저, 유망 신성장 분야를 제대로 선정하고 한정된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마련된 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17년중 정책자금 85조원을 첨단제조,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유망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 둘째, 창업-회수-성장-재도전의 선순환 기업 자금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분야는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분야로 두려움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창업관련 보증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데스벨리를 극복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자금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비록 실패했다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지원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창업분**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시장** 육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코스닥·코넥스의 상장제도 개선,
장외시장인 K-OTC의 거래 편의성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분야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대출, 보증 이외에 **민간의 모험자본**에 의한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모험자본이 많이 공급되도록
투자한도 등 **크라라우드펀딩** 제도를 개선하고
PEF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출, 보증, 투자 등을 통한 **융복합 금융**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용이하게 결합하는
협업 프로세스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V. 신성장위원회 출범 의미와 역할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금융공급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성장위원회의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말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신성장 공동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오늘 '**신성장위원회**'가 발족하고
실무지원 기구인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 및
'신성장 지원 점검단'이 구성됨에 따라
이제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신성장위원회는 IT,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는데 '조타수'가 되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먼저, 신성장 분야에 정책금융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17년 한해에만 85조원으로, 전체 정책자금 187조원의 40%가 넘는 매우 큰 자금이며,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우리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금이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둘째, 자금이 당초 계획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효과도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정책자금 집행에 집중하였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실적과 효과 분석을 DB화한다면 향후 정책결정과 평가를 위한 매우 유용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3) 셋째, '신성장 공동기준'을 산업·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그리고 유연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분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여 신성장 공동기준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성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하여 산업과 기술의 변화가 신성장 공동기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넷째, 신성장 분야 금융지원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신성장 분야는 여기에 계신 신성장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부처, 연구기관, 대학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고, 금융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한 지원시스템이 민간 금융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금융회사도 신성장 지원체계를 이해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신성장 공동기준과 실적 분석결과 등을 매뉴얼화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부문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감안하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성장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실무지원 기구인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과 '신성장 기준 점검단'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신성장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을 활용해 기존 신성장 분야의 타당성을 수시로 검증하고, 신규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신성장 기준 산정 모형도 산업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신성장 기준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서 자금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월' 점검·분석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유용한 창구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마무리 말씀

위원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르네상스시대에 변방 국가였던 영국을 단숨에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만들었고,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 단계의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처음 던진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민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를 끌어 안아야 미래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겨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신성장 위원회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고 우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헌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